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광주천 공원화 사업에 사철 꽃피는 꽃나무를 심자

서울에는 명물인 청계천이 있고 광주에는 국립공원 무등산과 광주 시내를 약 24.4km가량 흘러 영산강에 합류하는 광주천이 있다. 광주천은 둔치와 친변 공한지가 많다.

광주시가 광주천 가꾸기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 생태하천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으며 갈수기에도 상류에 하류의 물을 펌프질하여 물이 흐르게 하고 있어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것이 광주천이다.

광주천 전 구간 둔치가 정비되고 하천 따라 양쪽에 포장된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새로 단장되고 정리된 둔치 산책로는 하루 수천 명의 광주광역시민이 산책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며 놀이 운동 기구를 활용하고 있다.

광주천 공원화 사업은 서울특별시 청계천 복개를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만들어 공원화에 성공한 것을 보고 당시 박광태 시장이 광주천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으며 당시 부정적 시각도 있었으나 임기 내에 광주천 공원화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후임으로 강운태 시장 때는 둔치를 정리하고 하천 양쪽에 둔치 통행 도로를 만들었으며 운영현시장은 둔치의 포장과 편의 시설과 운동 시설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용섭 시장에 이르러 둔치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광주천 내에 심어진 나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제 광주천이 광주시민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공원화를 이루려면 시민 공원으로써 심터인 숲 거리가 있어야 하고, 볼거리로 사철 꽃피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미진된 상태로 해를 넘겼다. 이제 광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새해에 할 일인 광주천의 자랑거리가 되며 볼거리로 공원의 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 사철 꽃 피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광주천 전체를 조감도(鳥瞰圖) 적으로 보고 계획을 나누어 심을 꽃나무를 정해야 하며 꽃나무는 계절별로 구분하여 치우치지 않게 심어야 하고, 다양한 공원 꽃밭을 조성해야 한다. 하천이 흐르고 분수가 작동되고 있는 경관에 더하여 둔치 공한지 주변에 철

따라 오랫동안 꽃 피는 가로수를 올해 계획을 세워 심고, 철 따라 꽃피는 야생화 꽃밭을 만들었으면 한다.

꽃길 가로수로 봄에는 벚나무 산수유나무 매화나무, 여름에는 배롱나무 무궁화나무 이팝나무, 겨울에는 동백나무 등이 있으며, 단풍 가로수로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들 수 있다. 꽃길 가로수로 봄에 피는 벚나무는 꽃 피는 기간이 10여 일로 짧으나 여름에 피는 배롱나무 가로수는 꽃피는 기간이 100여 일로 길어서 백일홍(百日紅)이라고도 하며 여름 꽃길 가로수로 적합하다.

가로수는 그 지역 특화된 미관을 장식하는 관공자원이기도 하다. 봄철에 벚꽃축제 하는 곳을 가보면

길가 벚꽃 가로수 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벚나무 가로수가 경관을 보여주고 있고, 가을이면 단풍나무 가로수가 경관을 이루고 있어 지역 특색을 나타내며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광주천 일대가 배롱나무 꽃길로 조성된다면 여름내 꽃피는 광주천이 될 것이다.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도 배롱나무 가로수를 많이 심고 가꾸고 있어 꽃피는 남도의 여름 풍경을 장식해 고무적이다.

광주광역시 도로변에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으며 꽃피는 가로수가 심어진 도로가 드문데 광주천 공원이 사철 꽃피는 시민공원 역할을 했으면 한다.

광주천이 물이 흐르는 하천이면 녹화사업이 잘되어 산소공급을 하는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 녹음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철 푸르고 꽃피는 가로수 나무를 선택해 구간별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조선대학교는 운동장 공한지에 장미원을 만들어 해마다 장미축제를 하고 있다. 광주천 공원에 꽃밭과 꽃길 조성을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구간별로 나누어 배정된 구간

에 특색 있게 추진한다면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철에 오랫동안 꽃이 피는 배롱나무는 화순군에서 선택해 가로수 심기로 성공한 수종이며 묘목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천 둔치 꽃길 만들기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시민참여 운동으로 1인 1수 꽃길 가로수 심기 현수 운동을 펼쳐 추진할 수도 있다.

외부에서 광주를 찾아온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등산을 등산하고, 문화전당을 구경하고, 공원화된 광주천 둔치를 산책하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광주광역시 광주천 둔치 공한지에 꽃길 조성 가로수 심기 운동실천과 꽃밭 만들기 시행이다.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은 광주천 가꾸기를 후임자는 더욱 창조 정신을 발휘하여 광주천이 관광자원으로서 빛을 볼 수 있게 면 앞을 내다보며 주변 환경이 사철 꽃피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광주천이 되도록 꽃나무심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설이 남긴 포트홀 곡예운행 아찔

지난 한파와 폭설이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긴 뒤 주요 도로 곳곳에 움푹 패인 크고 작은 일명 포트홀이 많이 발견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포트홀은 주로 폭설이나 폭우 뒤 발생하는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일종의 움푹 패인 구멍으로 도로위의 지뢰로 불리기도 한다.

폭설 당시 제설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 및 소금 등 제설제와 더불어 대형차나 과적 화물차의 하중으로

인해 움푹 패인 포트홀을 운행중인 운전자들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를 피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 등 의도치 않는 곡예안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곳은 패인 작은 움푹이의 고여있는 물이 마주오는 차량의 앞 유리창에 튀겨 상대 운전자를 당황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혹여 포트홀을 덜컹 거리며 지나다 그 충격으로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앞을까 우려스럽

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 해가 떠 있는 낮에 포트홀을 마주하면 그나마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어두운 야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주하는 포트홀은 자칫 사고로 이어갈수 있어 그야말로 운전자에게 식은땀이 날 것이다.

겨울철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도로가 냉온을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지며 도로가 패일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한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도로

에 스며들면 아스팔트를 약하게 만들어 도로가 패이는 현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인력과 재정적인 여건, 그리고 수많은 아스팔트 도로 포트홀 발생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겠지만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해 제설구간 전반에 대해 점검을 통해 통행량 등을 고려해 정비가 시급한곳부터 포트홀이 발생한 구간은 신속히 보수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 또한 평소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은 예측불허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도로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행하는 한편 포트홀 구간을 통과할 때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서구 문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43)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